



#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자

김현회 /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호주에는 기우제 춤만 추면 언제든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부족이 있다고 한다.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웃 백인 마을의 지도자가 이 부족의 족장을 찾아가 물었다.

“당신들이 춤을 추기만 하면 비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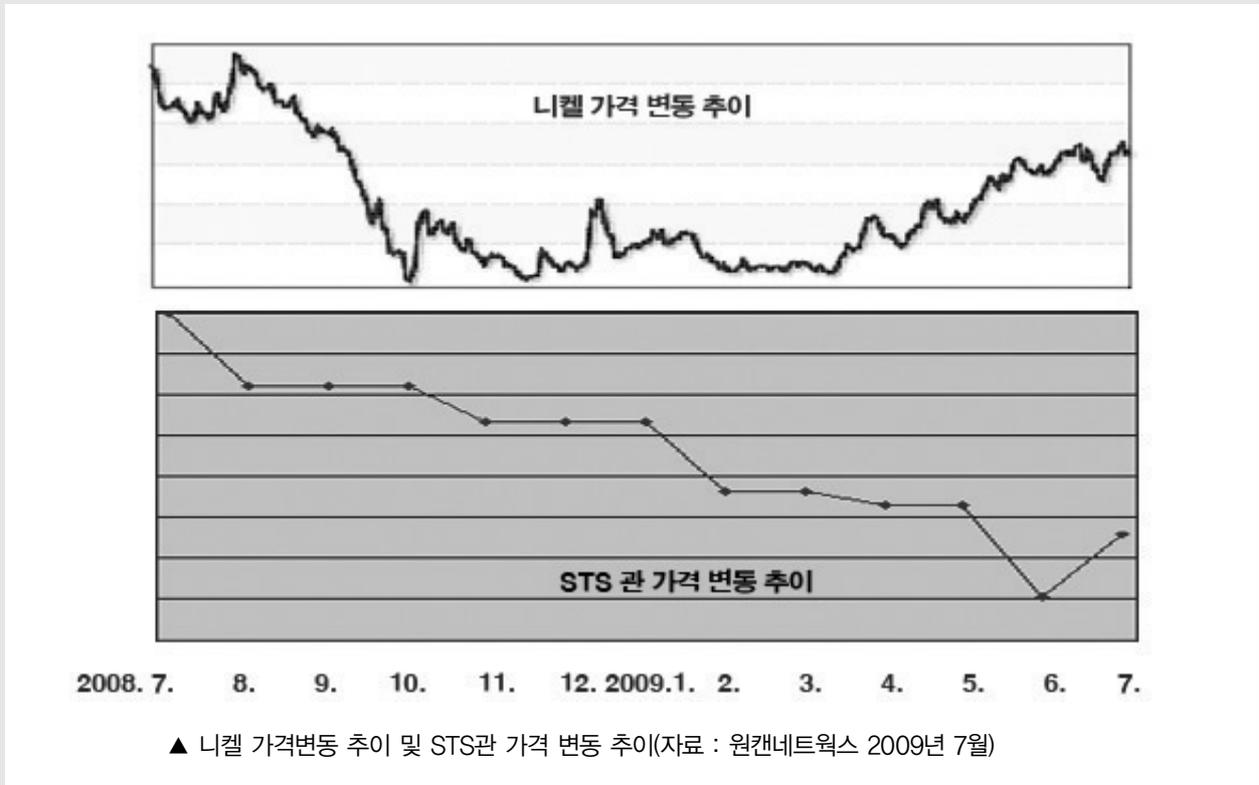
그러자 족장이 대답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전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회원사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자재 정보와 아울러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분석하여 게재한다.

## 7월 자재 동향

자재 및 원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원자재 시장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국제유가 상승세로 6월까지 상승세 보임</li> <li>- 7월 들어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하계 휴가철을 맞아 원자재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li> <li>- 당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li> <li>- 설비 자재 가격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보합세 전망</li> </ul>
동관 및 연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동안 상승 추세이던 동관의 가격은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급 원활</li> </ul>
STS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S관, STS 용접 부속의 경우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일부 규격의 경우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li> </ul>
소방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호스의 경우 형식승인 변경에 의하여, 소방앵글밸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격 인상</li> </ul>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품귀 물량의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선 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li> <li>- 장기 물량의 경우 하락 전망이 우세하므로 가격 추이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리</li> <li>- 소방 자재의 경우 시기별, 설비사별로 물량을 하나로 모아 구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li> <li>- 건설 경기 악화로 수요가 많이 줄어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견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제조사, 대리점별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인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구매, 입찰, 비교 견적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유리</li> </ul>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동 관련 제품은 가격이나 수급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최근 스테인리스 관련 제품이 들쭉이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그 원료 중의 하나인 니켈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번 호에서 두가지 물질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테인리스 관은 니켈의 국제 가격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스테인리스 관은 니켈의 국제가격에 2~3개월 후행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니켈의 국제 가격 동향을 주시하면 이후 스테인리스 관련 제품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년 3, 4월처럼 니켈 가격의 하향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선 구매를 하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설비 자재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 구매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